

2015년 미국 농업 무역 전망

□ 2014년 주요정리

- 농업부 장관 톰 빌색(Tom Vilsack)에 따르면 2014년은 농촌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농업법이 많이 실행되는 등 미국 농업에 있어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던 한 해로 평가함
- 미국의 농업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의 물, 전기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지원제도, 농가 위기보장제도, 특별 작물 보험제도 등의 농업법안 또한 활발히 시행됐음
- 또한 2014년 11월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의 실행으로 충분한 농가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장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
- 다만 올해는 다양한 요인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적은 공급물량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음

□ 2015년 향후 전망

- 농업부 장관 톰 빌색은 미국과 농촌지역의 발전에 무역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2015년에는 무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
- 이에 따라 파트너십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, 특히 전 세계 농업 무역시장의 1/3 거래를 맡고 있는 신흥주자인 아시아 시장으로의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음
- 전국농민연합(National Farmers Union)의 회장 로저 존슨(Roger Johnson)은 12월 백악관에 의해 발표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지역시장이 더욱 넓어진 만큼 미국의 농업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음
- 또한, 2015년에는 농업 무역에 있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¹⁾ 국가들과 범 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²⁾ 국가들과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

1) Trans-Pacific Partnership, TPP

지역의 11개 국가 간의 협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캐나다, 칠레, 멕시코, 페루, 싱가포르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브루나이, 일본으로 구성됨

2)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, EU

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

□ 해외농업국, 2015년 농업 무역 전망



-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농업의 수출예상액은 \$1,435억 달러로 2014년보다 \$90억 달러 하락한 금액임
- 또한 미국 농업의 수입예상액은 \$1,16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4년보다 \$68억 달러 증가한 금액임
- 중국 내 작물 비축이 증가하고 생산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, 작물의 단가하락 및 육류·가금육류의 단가상승으로 멕시코 및 캐나다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원유가격 하락 및 미화가치의 상승에 따라 농작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됨

출처 : USDA,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